농진원, 농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확대

제주감귤박람회서 배출권거래제 홍보·맞춤 상담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거래로 농가 추가 소득 기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2026 제주감귤박람회'에 참가해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홍보와 농가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진원은 박람회 기간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21일과 22일 오후 2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외부사업 참여 요건과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농가별 시설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한 일대일 상담을 제공했다.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농업인이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도입해 배출량을 줄이고, 인증받은 감축 실적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농진원은 올해 56농가의 신규 등록을 지원했으며, 농가당 연평균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300톤CO_2-eq이다.

농가가 10년간 감축 활동을 지속하면 약 3,000톤CO_2-eq의 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최근 배출권 거래가격인 톤당 약 3만 원을 적용할 경우 농가당 약 9,0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예상된다. 다만 실제 수익은 감축 실적 인증량과 배출권 거래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홍보물

특히 올해 신규등록 지원 농가 가운데 32농가는 제주에서 감귤 등을 재배하고 있어, 이번 박람회를 통해 히트펌프 적용 농가 등의 사업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형 농진원장은 "농업인이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박람회에서 설명회와 맞춤 상담을 연계해 더 많은 농가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농진청, 겨울철 축사 환기·단열 관리 당부

환기 부족 시 유해가스 축적 우려…적정 환기량 유지 중요


▲농촌진흥청 제공

과 단열 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보온을 위해 환기량을 지나치게 줄이면 축사 내부에 습기와 유해가스가 쌓여 가축의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벽이나 출입문 틈새로 찬바람이 유입되면 축사 내부 온도가 불균일해지고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어 적정 환기와 보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외부 찬 공기가 가축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입기구 덮개 각도를 조절하고, 환기팬과 입기구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환기시설은 보온재로 덮되 필요한 환기량은 유지해야 한다.

또 벽과 천장, 출입문 주변 틈새를 보수하고 손상된 단열재를 정비해 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개방형 축사는 윈치커튼을 조절하거나 포장 사일리지 등을 활용한 방풍벽을 설치해 찬바람 유입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창 육계 농가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부하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사육 규모와 시기, 축사 크기, 단열 정보 등을 입력하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계산해 단열 개선과 난방 관리에 참고할 수 있다.

장길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스마트축산환경과장은 "겨울철 축사 관리는 적정 환기를 유지하면서 틈새바람과 단열 불량으로 인한 열 손실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환기시설과 단열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농협중앙회

'농업노동자 인권지킴이 캠페인' 개최

농가주와 농업노동자 간 존중 문화 확산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부장 신원권)는 13일 충북 서청주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관내 농가를 찾아 농가주와 농업노동자 간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농업노동자 인권지킴이 현장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농업 현장에서 인권지킴이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외국인 농업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와 충북본부, 서청주농협 관계자들은 인권지킴이 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농가주와 농업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상담과 현장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또한 언어폭력과 성희롱·성폭력, 차별·괴롭힘 예방 등 인권보호 수칙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신원권 부장은 "안정적인 농촌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농업 현장에서 인권보호가 실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가주와 농업노동자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농업노동자 인권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고 인권침해 예방 점검과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농식품부

한일 농림수산 기술협력 강화 논의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일본과 농림수산 분야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확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하마마쓰시에서 열린 '제55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에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참석해 양국 간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정기 협력체로, 농업·임업·수산업 분야의 기술 발전과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특별의제로 '동아시아의 토양건강(Soil Health) 실현을 위한 쟁점 정리'를 다루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토양 관리 방향과 관련 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한일 양국은 지난 50여 년간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 공통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신기술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 약정조합원에 축산자재 지원

조합원 실익 증진과 축산환경 개선에 앞장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조합장 구희선)은 조합 경제사업을 전이용하는 약정조합원을 대상으로 총 3,600만 원 상당의 퇴비부숙제와 제각연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합 경제사업에 참여하는 약정조합원의 사양관리 부담을 줄이고, 축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퇴비부숙제 약 2,600만 원, 제각연고 약 1,000만 원 등 총 3,600만 원이다.

지원 물량은 농가별 사육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차등 배분한다. 퇴비부숙제는 전체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제각연고는 암소 사육 두수에 따라 지원량을 결정한다.

퇴비부숙제는 가축분뇨의 발효와 적정 퇴비 관리를 돕고, 제각연고는 한우 사육농가의 가축 관리에 필요한 자재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은 이와 함께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축산기자재 지원 등 조합원 실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데이터 전환 성과 공유

디지털 전환·스마트 해썹 사례 등 성과 공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11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제주해비치호텔에서 개최되는 '2026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분과를 운영한다.

해썹인증원은 식품안전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관련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식품안전 현장 관리와 디지털 전환(DX)·데이터 기반 해썹 시스템'을 주제로, 1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제주해비치호텔 크리스탈 비(B) 회의실에서 분과를 진행한다.


▲해썹인증원 투시도

세부 발표 주제는 ▲안전한 김 가공품 생산을 위한 해썹 관리 개선방안 연구(해썹인증원 손찬욱 심사관) ▲해썹 주요 부적합 공정 및 새로 도입된 공정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해썹인증원 박윤서 심사원) ▲해썹 위해요소분석 디지털 전환(DX) 시스템 구축 사례 소개(해썹인증원 손영훈 팀장) ▲데이터가 만드는 식품안전: 스마트 해썹의 현장 적용과 확산(해썹인증원 이시우 심사원) 등 4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된다. 좌장은 해썹인증원 송성옥 인증사업이사가 맡는다.

송성옥 인증사업이사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안전관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현장 중심의 해썹 관리 개선 방안과 위해요소분석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해썹의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해 식품안전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식품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